

화장품 벤처회사 Olaplex vs 대기업 L'Oreal – 머리염색약 기술이전 라이선스협상 결렬 후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소송: 미국법원 판결 - 대기업 L'Oreal 거액 손해배상책  
임 인정



## 1. 사안의 개요

대상기술 – 머리칼 탈색 및 염색 시 손상방지 및 보호기능, 벤처기업 Olaplex 제품관련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제품발매 단계에서 2건의 특허등록, 대기업과 기술이전 협상, 기  
술이전 파탄 후 대기업에서 경쟁제품 발매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계약위반 등을 주  
장하는 소송 제기함

## ORIGINAL OLAPLEX



## L'ORÉAL "ME TOO" KNOCKOFFS

Matrix Bond Ultim8	Redken pH-Bonder	L'Oréal Professionnel Smartbond

### 2. 미국법원 소송결과

미국 Delaware 연방법원 2019. 8. 12. 배심평결 - 영업비밀 침해 인정, NDA 계약위반 인정, 특허고의침해 인정

배심평결 - \$22.3 million in damages for L'Oreal's willful infringement of its trade secrets +

\$22.3 million for breach of contract + \$47 million for infringements of patents

### 판사의 손해배상액 조정 및 최종 판결 내용

Table: Adjustment of Damages in the August 20, 2019 Judgment

Date	Event	Jury Award			Final Order	
May 19, 2014	Unpublished patent applications shared with L'Oréal Trade secrets exist	Trade Secret	Contract claim		Trade secret and breach of damages	Patent Claims
Feb. 5, 2016	Trade secret was published (256 days after jury found the plaintiffs conveyed its trade secrets to the defendant - revealing use of maleic acid)	(\$22.3M)	(\$22.3M)	Patent Claims (\$21.8M) (\$25M)	(\$9.5)	(\$25M)
	Willfulness	TBD	N/A	TBD	(\$19M)	

### 3. 실무적 포인트 - 영업비밀과 특허의 결합으로 기술보호 강화

상업화 전 단계에서 너무 빨리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여 공개하면, 이를 입수한 대기업

등 경쟁사들이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으로 바탕으로 특허기술을 회피할 가능성 있음.

그러나 판매된 신제품을 구입하여 분석하여 그 핵심기술을 알아낼 수 있다면, 즉 reverse engineering 가능한 경우라면 영업비밀로는 그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없음

따라서, 신제품 판매전까지 단계에서는 핵심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지만, 제품 판매로 인한 기술공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미리 특허출원하여 해당 기술을 특허 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필수적임

한편, 기술이전 협상을 하는 경우 NDA 체결하여 기술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임

본 사안은 영업비밀, 특허, 계약상 보호조치를 모두 취한 결과 소송을 통해 대기업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함.

첨부: 1. 미국 Olaplex vs L'Oreal 소장, 2. 미국법원 판결문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A~Z 수행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